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2013년 제1차 운영위원회 인사말씀

자성과 쇄신결사 추진본부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계사년 새해 인사를 함께 하며, 본부장 도법스님을 비롯하여 지난 한 해 진력을 다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년 다사다난 하지만, 지난해는 종단 안팎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뜻하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로 종단 전체가 어려움에 휩싸여 많은 시련을 겪었으며, 과거의 잘못과 그릇된 관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찌하기 힘들었던 궁벽한 위기를 우리 종단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배경엔 결사추진본부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자성과 쇄신 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데 대한 역사적, 사회적 정당성이 불순한 왜곡을 막아냈다면, 참회와 안정, 그리고 쇄신이라는 결사 자문회의의 원칙 천명이 종단 내부의 확고한 중심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 쇄신의 중심에 결사추진본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종단은 더 큰 시련과 격랑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결코 쉽지 않은 힘든 일을 묵묵히 추진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9년 11월 총무원장에 취임하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불교’를 발원하고, 한국불교가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 발전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들을 하나씩 실천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추진한 일은 종단이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기 위해 제33대 집행부의 의지와 대중의 원력이 모아진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제 제33대 집행부는 그간의 살림과 성과를 돌아보고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에 대한 변화요구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한국불교 스스로 희망을 만들고 국민의 시선과 나란히 같은 곳을 바라보며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현 집행부를 이어 자성과 쇄신 결사는 지속적으로 추진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종단은 ‘대중공사’를 바탕으로 종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생명평화 정진, 사부대중 야단법석, 무차대회 등 ‘민족화해, 평화통일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1000일 정진’을 통해 못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한 종단의 자성과 쇄신 결사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자문위원회의의 고견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넘어 의식개혁이라는 내면의 쇄신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난 해 종단쇄신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산중총회법 등 쇄신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종단의 행정력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총림법과 주요한 선거법 개혁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반기 쇄신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승가 청구와 종단 운영제도, 법계직무제도, 호법제도, 승려복지제도 등 쇄신안이 완성되면 종도들의 의견을 모아 입법화를 거쳐 원활히 집행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종교평화위원회, 화쟁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의 사회적 실천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본은 남북 경색 국면 속에서도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등 교류의 물꼬를 텃으며, 종평위는 각종 종교편향 사건에 신속한 대응을 했습니다. 화쟁위와 노동위는 쌍용자동차, 용산, 제주해군기지 등 우리 사회 첨예한 갈등의 현장에서 화쟁적 해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올 한 해도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는 지난해 종단이 추진한 결사와 쇄신의 활동들을 점검하고, 올 한 해 추진해 나갈 사업들에 대해 공의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종단의 결사와 쇄신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위법망구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한국불교 쇄신과 중흥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종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리란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2013)년 2월 6일